한국문화기술 통권 제6호 2008.12. pp.67~80

〔일반 논문〕

시치료를 위한 시창작교육의 실제

The Educational Practice of Poetry Composition
for Poetrytheraphy

김지훈
(대덕대 강사)

차례

1. 서론
2. 본론
1)시치료
2)임상사례(강의)
3. 결론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시창작교육의 또 다른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있다. 문자보다 영상과 가까운 세대들에게 〈창작→강평〉의 단순한 교육은 더 이상 성과를 얻기 힘들다. 새로운 콘텐츠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지용의 향수를 읽은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중·고등학교 참고서에 나온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시의 갈래와 내용, 어조, 분위기,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말 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 상상[1]을 통한 교육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정지용의 시를 판타지라 해도 틀린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문학예술의 본질은 '권력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시는 서둘러 결론을 내

1) '적극적 상상(Active imagin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이다. 이는 생각나는 대로 상상하는 수동적인 환상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무의식의 이미지를 객관화하고 의도적으로 자아와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감정이나 정서를 이미지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또한 꿈과 무의식의 표출과 더불어 시치료 방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릴 성격의 것도 아니며,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얼룩백이/황소가/해설피/금빛/게으른/울음을/우는 곳//”이 도시에서 살고 영상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는 ‘농촌 고향’의 이미지보다는 옛 이야기에 나오는 ‘학습 된 고향’의 이미지가 클 것이다. “시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느끼는 것이다”라는 것이 내 지론이다.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외롭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 말한 ‘군중속의 고독’ 증상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각종 정신질환을 겪는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대낮 거리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 국보에 불을 질러 관심을 받고 싶은 방화범,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받은 상처가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사건 등 인간은 심적으로 나약해졌고 인간의 가치는 크게 훼손되었다. 그것은 ‘부조리함 속에서도 묵묵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교육의 오점이다. ‘시치료를 활용한 시창작교육’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시치료는 시를 활용한 대체의학으로서 정서장애 등의 정신치료를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시치료는 예방과 치료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약물이나 기타 의학 장비에 의존한 기존의 치료방법과는 달리 심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시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문학교육도 더 나은 커리큘럼, 콘텐츠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문학콘텐츠의 방안으로서 ‘시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창작교육의 실제(임상사례)’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시치료

시치료(Poetrytherapy)란 말은, ‘poetry’라는 시와 ‘therapy’의 “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즉, 시를 활용한 치료방법의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시적 의미의 시치료란, 지각, 정서, 인지, 행동, 신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병리적인 내담자가 치료자와 치료적 관계에서 시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보다 안

정적인 정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손상되고 미숙한 자아를 보다 조직화되고 통합된 '건강한 자아'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거시적 의미의 시치료란 내담자가 치료적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며, 시는 물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생각하기, 시적활동하기 영역과 응용적 처치로써 시치료에 필요한 모든 보조적 활용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2]"

시치료의 목적은 치료에만 한정 된 것이 아니라 예방 즉, 예방의학으로서 심리치료의 예비단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시치료를 위한 시창작교육에서는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시를 통해 내담자의 내면의식을 분석하고 내적갈등을 풀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치료를 활용한 시창작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 상상을 통한 시 쓰기'와 '자아 정체성 찾기'다. 직접적인 사례(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임상사례(강의)

본 논고에서 다룬 실제 모형은 단국대학교 2008년 2학기 〈연애시 창작〉 강의시간에 진행되었다. 9주 강의 중 3주차씩 3회에 걸쳐, 적극적 상상력—창의성을 위한 시간, 나는 누구인가?—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사례1〉 적극적 상상력(창의성)을 위한 시간

* 일시 : 2008년 9월12일(2주차)~26일(4주차) 12:20-14:10
* 장소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B동 420호
* 참여자 : 최영정(단국대 문예창작과 3학년), 하윤호(단국대 문예창작과 3학년), 황정희(단국대 문예창작과 4학년)
* 치료사 : 김지훈(단국대 2008-2학기 예술대학 교양과목 연애시창작 교수)

강의실 칠판에 빔-프로젝트가 빛을 쏘고 있다. 백지의 한글 파일 위에 커서가 깜빡

2) 최소영, 「시치료가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18.

인다. 학생들은 모두 눈을 감는다.

T : (백지의 한글 파일을 가르키며) 눈을 뜨고, 이 시의 느낌에 대해 말해보세요.

최영정 :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윤호 : 두려워요, 공포스러워요.

T : 폭설이 내린 길을 상상 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황정희 : 고립 된 차가 깜빡이를 켰어요.

T : (한글 파일 상단에 붉은 점 두 개를 그린다, 조금 아래 더 큰 붉은 두 점을 그린다) 여러분들은 고립 된 경험이 있습니까?

최영정 : 홍수가 났을 때, 가족이 많이 다쳤어요.

황정희 :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방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T : 한글 파일을 한 번 보세요. 토끼가 겨울산에서 밥 달라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세요. 토끼가 보이나요? 이제 토끼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이 뛰고 있지요? 토끼가 여러분들 마음 속에 들어 왔습니다.

학생일동 : (밝은 표정)

T : 조금만 상상력을 펼치면 세상이 달리 보이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느낌을 시로 한 번 써 보세요.

토끼가 달 안에서
방아를 찧는다
천둥이 친다
무섭다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비 오는 날엔 집 안에만 있었다
마당에서 누군가
플래쉬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다
나도 찍고 싶다
하늘이
우리 집 화단에 번쩍
플래쉬를 터뜨린다

스마일!

—최영정의 시

시치료는 퇴행을 수단으로 하는 놀이를 지향한다. 그 이유는 진지한 놀이를 통해 인격이 다시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치료에서 창의성을 복돋아 주는 것은 중요하다. 창의성이란 배운 것을 지워 버려야 만들어지고, 그 순간 고착된 상처가 치유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라마찬드란 교수는 시쓰기야말로 창의성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시란 시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을 말한다. 위의 시에서 '천둥'이라는 시어가 사진기의 '플래쉬'로 이미지가 변화되었다. 적극적 상상력을 통해 고정된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로 전이된 좋은 예다. 다음은 기존 시를 패러디 하여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2〉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간

*일시 : 2008년 10월10일(6주차)~-24일(8주차) 12:20~14:10
*장소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B동 420호
*참여자 : 이유림(단국대 문예창작과 3학년), 이옥수(단국대 문예창작과 3학년), 이혜미(단국대 문예창작과 3학년)
*치료사 : 김지훈(단국대학교 2008-2학기 예술대학 교양과목 연애시 창작 교수)

시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공간은 크게 주공간, 부수적 공간 그리고 이상적 공간과 유사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실재의 공간과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고 마음과 의식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심미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심미적 공간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실재의 공간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 찾기 또는 회복의 과정은 자아 정체성을 찾는 좋은 방법이다. 패러디 기법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담자들은 20대 초반의 여학생들이고, 그들의 고민과 꿈은 '연애, 학업(창작)'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진은영의 시 '러브 어페어'를 선정했다.

(어떤 남자와 사귀고 싶습니까?)
그런 남자랑 사귀고 싶다
아메리카국경을 넘다
가슴에 총 맞은 흰 셔츠의 멕시코청년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너와
결혼하고 싶다
(언제, 어떻게 입맞춤 하고 싶습니까?)
바그다드로 가서
푸른 장미
꽃봉오리 터지는 소리가
폭탄처럼 크게 들리는 고요한 시간에
당신과 입맞춤하고 싶다
학살당한 손들이 치는
다정한 박수를 받으면서

크고 투명한 물방울 속에
우리는 함께 누워
물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초록 물고기에게,
학살자의 나라에서도
시가 쓰여지는 아름답고도 이상한 이유를

—진은영, 「러브 어페어」

위의 시는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이성, 연애, 결혼, 사회, 인간사 등 다양한 소재가 표현되었다. 내담자들의 고민은 과중한 숙제, 무미건조한 일상, 창작에 대한 욕망, 이성, 연애 등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시를 패러디함으로서 시라는 가상현실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 소망, 정체성을 찾는다. 또한 이러한 자아정체성 찾기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

고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 내담자들의 패러디 시

시 1

그런 남자랑 사귀고 싶다.

제주도 앞바다를 넘어오다
배멀미로 바다에 웩—하는 제주도 청년
너와
결혼하고 싶다
한라산으로 가서
노란 감귤
수확하는 금같은 시간에
당신과
입맞춤하고 싶다
귤 따는 손들이 치는
다정한 박수를 받으면서

제주도 푸른 바다 속에
우리는 함께 헤엄치며
물을 것입니다.
육지에 사는 노란 오렌지에게,
오렌지의 나라에서도
감귤이 팔리는 아름답고도 당연한 이유를

—이유림(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

시 2

그런 남자랑 사귀고 싶다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리다
조중동의 폭격을 맞은 미네르바같은 남자
너와
결혼하고 싶다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정도에 대한 야심을
터트리는 찬란한 시간
당신과
입맞춤 하고 싶다
부조리하거나 비뚤어진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과
투명한 정의 구현을 위해
당신과 나는 걸어갈 것이다
지나가는 노란 풍선이
보온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날들이 찾아올까
걱정하는 나라에서도 시를 쓰는 아름답고 이상한 날에

—이옥수(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

시 3

그런 남자랑 사귀고 싶다
나에게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는
기쁨조가 될 흰 셔츠의 훤칠한 청년
너와

결혼하고 싶다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아들과 그리고 네가
전부 머리를 밀고
말끔하고 매끈한 머리통을
드러내며 거리를 활보할 계획을 가진 남자
당신과 입맞춤하고 싶다
매일매일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남자

폭신한 잔디밭에
우리는 함께 누워
결혼과 연애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대한 계획을 지껄이며
어이가 없어하는 이들을
맘껏 비웃으며

—이혜미(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

갈비뼈 근처가 자주 아팠다. 그리고 종종 피를 토했다. 더디게 문장들을 엮어가는 시간도, 자꾸 나를 몰아붙이는 J도, 시간에 떠밀리듯 하루를 보내는 일도, 심지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도 나를 목을 조르며 아프게 했다. 뒤엉킨 하루의 매듭을 풀어줄 무언가가 없었다. 그런데 문득 웃고 있는 나를 보았다. 그것도 시를 쓰면서. 끝과 끝을 알 수 없는 긴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가는 게 아니라 싹뚝 잘라버리는 기분이었다. 살갗을 파고드는 통증이 모두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고, 그냥 내가 있었다. 이제는 웃으며 펜을 드는 내가 있었다.

—이옥수(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

저는 정말 편하게 썼어요, 2분만에 썼어요!

과제라고 했을 때는, 단 10행의 시를 쓰는 것인데도 어떻게 써야할까, 어떤 단어를 써야하지? 라는 생각들이 중첩 되서 정말 괴롭거든요. 괴로워하는 만큼 시가 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패러디 시에서 '패러디'에는 '재미'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했어요!

일단 패러디라는 용어 자체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림(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

코뼈 근처가 시큰거렸다. 귤 냄새도 났다. 과제 할 때는 의무적인 환경에서 오는 압박감이 강했다. 하지만 즐기면서 쓰는 패러디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

—이혜미(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

현실부정은 공간성의 상실,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내담자들은 시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공간성의 확보, 재구성을 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은 포이에시스(poiesis)[3], 아이스테시스(aisthesis)[4], 카타르시스(katharsis)[5]를 경험하게 된

3) 자연 그대로의 모방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지의 모방, 자유의 모방, 꿈의 모방을 의미한다. 플라톤이 말한 인식이 아니라 실제의 생산이 치유를 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고 구성하는 일이 치유하게 한다. 자신의 이야기는 곧 자신을 다시 만들어 간다.

4) 일정한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 올 수 없다.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가 슈클로프스키는 '낯설게 하기'를 이야기 했다. 새로움, 변화는 치유의 원동력이 된다.

5) 정화 혹은 배설로 번역된다. 플라톤은 문학이 쓸데없이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 이성적 생활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생활이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고 배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시치료에서 균형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다. 이러한 내재적 기능으로 인해 '자아 정체성'을 확신하게 된다.

내담자(학생들)의 시 마지막 연을 살펴보자. 일상적인 연애담을 넘어 주제의식의 확대, 시의 전체적인 균형과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오렌지의 나라에서도 감귤이 팔리는 아름답고도 당연한 이유", "걱정하는 나라에서도 시를 쓰는 아름답고 이상한 날에", "우리의 원대한 계획을 지껄이며 어이가 없어하는 이들을 맘껏 비웃으며"와 같이 시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원작의 안정된 리듬과 더불어 내담자(새로운 창작자)만의 또 다른 세계가 구축되고 있는 좋은 예다. 우리가 흔히 바이오 리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몸 상태뿐만 아니라 기분, 정서, 분위기 등의 심리 상태도 내포하는 용어다. '시의 리듬 또한 예방과 치료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리듬 안에는 사유와 정서 그리고 사회성과 더불어 인간의 본질적인 사상이 담겨있다.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는 내담자에게 예방과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제공한다. 리듬이 깨어졌을 때 느끼는 불유쾌감을 병이라 하고, 리듬감의 회복을 통하여 예술은 치유효과를 드러내기도 한다.'[6] 이를 통해 패러디 할 시 작품을 선별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의 형식적인 측면인 리듬이 '시치료를 위한 시창작'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시는 문답법을 활용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내담자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레 시를 쓰게 하는 환경을 마련했다.

3. 결론

지금까지 시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창작교육의 시안을 살펴보았다. 이는 새로운 콘텐츠, 커리큘럼의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고도로 급성장 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고 상실되는 현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끝으로 내담자(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시치료(강의)를 진행하는 치료사(교수)에게 요구되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 구인환·우한용·박인기·최병우 지음,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3, p.133.

'첫째, 시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고 개방적 자세로 임상(강의)을 진행한다. 둘째, 텍스트안은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한다. 셋째, 치료사(교사)는 '도식적인 견해'를 넘어 내담자(학생)의 작품의 '틈새'나 '불확정성의 부분'을 구체화시켜 수용할 수 있는 고급독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내담자(학생)의 작품을 분석·종합하여 그 의미를 수용하는 데에 매개역을 해야 한다. 내담자(학생)의 상상과 체험을 확대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사(교사)는 장인적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7]

본 연구는 '시치료를 위한 시창작교육'의 실제를 통해 정서장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내담자(학생)들의 변화 및 자기치료화를 위한 분석을 해 보았다. 이는 시치료가 심리치료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안 연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임상부분의 연구는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신중과 깊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인환·우한용·박인기·최병우 지음,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3.

변학수,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진은영, 『우리는 매일 매일』, 문지, 2008.

최소영, 「시치료가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 위의 책, p.209 참고.

Abstract

The Educational Practice of Poetry Composition for Poetrytheraphy

Kim, Ji-hun

This study intends to grope for another new methodology for the education of poetry composition. The education that has a simple process of 〈Composition→Criticism〉 can hardly lead to a desirable result any more to the generations that are closer to images rather than letters. It is urgent for it to create new contents. The term made by an American sociologist, David Riesman, 'the Lonely Crowd', tends to increase day by day. This has resulted in more 'invisible patients' who are suffering from various mental diseases. Human beings are getting more fragile mentally and their value is greatly damaged on account of such incidents as the murder case in the middle of the street of the day, an arsonist setting fire to a national treasure to get attention, and the suicidal behavior from getting hurt in the off-line space. These are the faults resulted from the education that teaches 'Patience is a virtue that one endures even in absurdity in silence.' The author thinks that this is an absolute point of time to make as a contents the 'education of poetry composition through poetrytherapy'. Poetrytherapy is an alternative medicine using poetry and can be seen as a process for treating mental diseases like psychotic disorders. In other words, poetrytherapy has two attributes of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ims to analyze psychological factors and use poetry actively to resolve such problems unlike previous treatments depending on drugs or other kinds of medical equipment. Now is the

significant time for the literary education to develop enhanced curricula or contents. In this sense, this article discussed as a method of literary contents, the 'educational practice of poetry composition for poetrytherapy(clinical cases)'. It develops its points including the first one, 'the time for active imagination' and the second one, 'the time for establishing self-identity. Active imagination is different from passive illusion of reckless imagination and is a method to objectify the images of unconsciousness actively and separate ego intentionally. In other words, active imagination is a work to interpret one's emotion into certain phases. This has positive functions to be used in poetrytherapy as well as to express one's dream and unconsciousness. The establishment of self-identity through poetrytherapy provides factors that enable a person to confirm his being and position in the virtual space of literary works, which has not been possible in reality. This process of space discovery is a good way to find self-identity.

주제어 : 시(Poetry), 시치료(Poetrytherapy), 시창작교육(Creative Writing Education of Poetry), 패러디(Parody), 치유(Healing), 문학치료(Literarytherapy), 예술치료(Artstherapy)